

## 모든 애씀을 끝내고 한결같은 요기가 되어라.

오늘 자녀들의 마음의 정복자 아버지는 자녀들 마음속의 사랑을 보며 매우 행복하다. 오늘의 만남은 마음의 위로자 아버지와 사랑하는 자들인 자녀들의 만남이다. 너희가 바바 앞에 직접 앉아 있든 물리적으로 먼 데 떨어져 있든, 너희는 마음에서 가깝다. 심지어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도 그들 가슴속 사랑으로 인해 마음의 위로자 아버지 앞에 직접 있다. “바바”라는 선율이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연주되고 있다. 이것은 한정된 멜로디가 아닌 무한한 선율이다. 심지어 지금도 그런 자녀들은 아버지 눈 속에 들어 있다. 그들의 기억에 대해 밥다다는 특별하게 반응하고 있다. 자녀인 너희들 모두 마음의 위로자 아버지의 가슴의 옥좌에 앉혀져 있지만, 여전히 너희들 모두 등수대로인데, 마치 모두가 다 염주의 구슬이지만 첫 여덟 구슬과 만 6천 구슬 중 마지막 구슬과는 다르듯이 차이가 난다. 그것들 모두가 다 구슬이라고 불리지만 큰 차이가 있다. 등수를 차지하는 기반인 주된 구호는 “성스러워져라, 요기가 되어라” 이다. 요기들 중 첫 번째 유형은 요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고, 두 번째 유형은 항상 요가 상태에 있는 요기들이다. 세 번째 유형은 장애를 없애고 죄를 잘라 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노력에 따라서 결실을 받는다. 과거 생애 또 신봉의 길에서 행한 고귀한 행위를 기반으로 아무 노력 없이 한정된 왕국을 유산으로 받는 자들도 있는데 그들은 유산에 대한 권리를 토대로 모든 것을 다 성취한다. 이 때문에 그들은 자동적으로 자기의 왕국에 도취된다. 그들은 자기가 왕자나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그 성취와 소유물을 자연스럽게 인식한다. 오늘날에는 왕이 없는데, 이것은 동시대 초기의 왕들에 대한 언급이다. 그것은 신봉이 사토구니하던 때의 측면이다. 그렇게 일등급인 자녀들은 자연스러운 요기의 삶을 산다. 그들에게는 유산을 토대로 성취의 보물들이 끊임없이 흘러넘친다. 그들은 “오늘 제게 행복을 주소서”나 “오늘은 제게 평화를 주소서” 라고 말하느라 애쓸 필요가 없다. 그들은 생각이라는 단추를 누르자마자 광산이 열린다. 그들은 한결같이 넘쳐흐른다, 즉 그들은 요그윳트해서 끊임없이 요가에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 유형의 요기들은 요가를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오늘날의 사업가들과 같다. 때때로 그들은 많이 벌고 때로는 조금 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보물들이 있다. 그들은 버는 데 대한 도취감을 가지고 그 행복도 역시 있지만, 그것이 한결같지는 않다. 어떤 때 그들은 완전히 완성된 단계의 화신이고 다른 때는 “난 더 원해. 나는 더 많이 원해” 라는 생각으로 인해 그들은 노력한다. 그들은 한결같이 충만하거나 끊임없이 안정해 있지 못한다. 그들 자신에 대해 한결같이 충족되지 못한다. 그들은 요가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요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요가가 끊어져서 그러면 그걸 다시 연결해야 하는 자들이다.

세 번째 유형은 오늘날의 근로자들과 같다. 그들은 단순히 일해서 벌어먹는다. 그들은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서 편히 먹고산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무 것도 비축하지 못한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한결같이 행복해하며 춤추는 자들이 아니다.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때로 그들은 낙담을 느끼고 때로는 행복하다. 이 세 가지 자녀들의 유형이 있다.

아버지가 이르는데, 너희들은 모두 모든 성취의 보물들을 유산으로 받는다. 너희들 모두에게 이 권리가 있다. 너희들은 타고난 요기들이다.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자아주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너희는 자녀들이고, 아버지의 보물들에 대한 주인들이다. 그러니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느냐? 창조자 마스터인 너희가 어째서 노동자들처럼 애써야 하느냐? 저 사람들은 200을 벌어서 그 200으로 살거나, 2천을 벌어서 그 2천으로 산다. 마찬가지로 너희는 2시간 요가를 해서 2시간을 그 결실로 경험한다. 오늘 너희는 6시간 또는 4시간 요가를 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왕국의 상속자는 자기가 단 이틀이나 나흘 동안 왕국을 가진다고는 결코 말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너희는 변함없이 아버지의 자녀들이므로 언제나 그의 보물들에 대한 주인이다. “바바”라고 말하고 나서 기억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므로 “나는 아이이며 주인인 고결한 영혼이다. 나는 모든 보물들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라는 구호를 끊임없이 기억해라. 이기고 지는 게임, 즉 이겼다가 다시 지는 놀이는 하지 마라. “내가 원한 것은 무엇이든 다 얻었다.” 그러니 너희가 이미 이긴 것을 무엇 때문에 잃고, 또 다시 이겨서 그것을 되찾아야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부르는 노래를 “나는 여전히 획득하고 있다! 나는 아직도 얻고 있다!” 라고 바꿔야 한다. 이런 것은 모든 권리를 다 가

진 자의 말이 아니다. 너희는 끊임없이 충만한 아버지의 자녀들이다. 너희는 대양의 자녀들이다. 이제 너희는 뭘 하려느냐? 한결같은 요기가 되어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신인이 될 브라민이다”냐, 아니면 “나는 신인이 될 전사다”냐? 밥다다는 자녀들이 노력해야 하는 걸 보며 자비를 느낀다. 왕의 자녀들이 노동자의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옳게 여겨지느냐? 너희들 모두 주인이 되어라!

오늘 바바는 단지 그룹들을 만나려고 왔을 뿐이다. 그러면 왜 멀리를 말했겠느냐? 이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오늘 많은 수의 마하비르 자녀들이 바바를 끌어당기고 있다. 오늘 밥다다는 그 자녀들을 그의 앞에 두고서 멀리를 말했다. 이 나라와 외국의 여러 마하비르 자녀들이 바바를 아주 많이 기억하고 있다. 밥다다는 그런 봉사자 (세바다리)들, 순종적이며 (아기야카리) 자연스러운 요기들도 역시 특별하게 기억하고 있다.

밥다다는 끊임없이 멀리를 듣기를 원하고, 대단히 봉사를 잘 하며 사랑으로 충만하고 사랑 속에 잠겨 있는 모든 마두반 거주자들과 차트락 새들처럼 지극한 사랑을 가진 외국인들 모두에게 각별한 사랑과 기억을 보내주고 있다. 밥다다는 모든 마두반 거주자들과 아래에 앉아 있는 자들 모두, 그러나 바바의 눈 바로 앞에 있는, 즉 지칠 줄 모르고 봉사할 줄 아는 자녀들 모두에게 각별한 사랑과 기억을 보내주고 있다. 동시에 그는 또 바바 앞에 직접 있는 행운의 별들에게도 역시 각별한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인사를 보내고 있다.

#### 벵골, 비하르, 네팔 지구에서 온 형제자매들과의 개인적인 만남.

1. 너희들은 멀리를 들었다. 이제 멀리를 들었으니 너희는 그것의 화신이 되어야 한다. 하나는 뭔가를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의 화신이 되는 것이다. 누구나 자기가 들은 것에 대해서는 깨닫게 된다. 심지어 지식이 없는 자들도 들은 것은 기억할 수 있지만, 지식을 가진다는 것은 너희에게 이른 대로 너희가 그것을 실천에 옮긴다는 뜻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무엇의 화신이 되겠느냐? 주인이며 아이가 되는 것은 너희가 들은 그대로 화신이 된다는 뜻이다.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너희는 또 그에 대한 보상도 역시 경험해야 한다. 너희 자신을 여전히 노력가라 여기며 미래 언젠가 보상을 받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합류시대의 특별함은 너희가 노력도 하고 또 그 노력에 대한 실질적인 결실도 역시 지금 경험하는 데 있으며, 즉 지금 기억의 화신이 되고 지금 성취도 경험한다는 것이다. 너희에게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그렇긴 하되 현재의 행운이 미래의 행운보다 오히려 더 크다. 너희들은 현재의 때에 대한 유산을 이미 받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이미 성취했느냐, 아니면 앞으로 그것을 얻을 것이냐? 만일 이미 성취했으면 너희들은 암릿 벨라에 여전히 불평하고 있지는 않지? 기억 (야드)과 불평 (파리야드), 둘 중에서 하나만 있을 수 있다. 기억이 있는 곳에는 불평이 있을 수 없다. 불평이 있는 곳에는 기억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의 불평이 이제 모두 멈췄느냐? 너희들의 의문부호가 모두 끝났느냐? 불평에는 의문부호가 함께 있는 한편, 기억에는 단지 점인 마침표뿐이다. 점이 되어 점인 분을 기억해라. 아버지는 점이고 너희 모두 역시 점들이다. 그래서 변화의 땅에 왔으니 너희는 반드시 뭔가 특별하게 변해야 한다. 자, 이제는 불평하기를 그만두고 자연스러운 요기로서 여기서 돌아가라. 불평이 있을 때는 행복이 없고 혼란뿐이다. 그러니 아버지에게서 혼돈이 아닌, 행복이라는 너희의 보물을 차지해라. 너희들이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받은 보물은 혼돈이었다. 그것이 이제 멈췄다. 육신의 관계들은 모두 끝났으니 너희의 불평도 역시 다 끝났다. 이제 너희가 알로킧한 아버지에게 속하고 알로킧한 유산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의 불평의 목록이 끝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그걸 찢어버리지 않았느냐? 그걸 그저 지우개로 지우기만 했다면 너희들은 때때로 그것이 거기 적혀 있었다는 말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목록을 찢어버림으로써 그것들을 전부 다 끝내라. 봉사하는 데 너희 시간을 써라. 너희가 준비될 때까지는 왕국의 도래가 지연될 것이다. 너희는 새로운 봉사 계획을 세웠느냐? 너희들 모두 마하야기야 (대규모의 희생의 불)에 봉사했다. 브라민들의 집회를 열고 봉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참석하고 항시 제때에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라. 관용하는 너희의 힘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간직해라. 이 모든 것이 너희의 등록부에도 역시 쌓인다. 이것은 너희의 최종 결과와 연결된다. 오늘날 그들은 석 달이나 여섯 달마다 시험을 본다. 그 점수들은 전부 다 누적되어 최종 결과에 반영된다. 너희들도 역시 브라민들의 고귀한 과제 모두에 협조한 데 대한 점수를 받는다. 이 점수들이 최종결과에 누적될 것이다. 너희들은 모든 것을 잘 견뎠고 너희 몸, 마음, 부를 사용했다. 사용한다는 것은 곧 얻는다는 뜻이다. 너희가 받은 지시에 따라 뭔가를 한다는

것이 또 점수를 쌓는 것이기도 하다. 너희들은 단지 마하야기야에 그저 온 것이 아니라 최종결과를 위해 점수를 쌓기도 했다. 그러니 이것이 봉사 아니냐? 이 소리를 퍼뜨리는 것은 또 봉사의 한 주제가기도 하다. 봉사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그러므로 집회로서 소리를 퍼뜨리는 것도 역시 봉사다. 너희들은 가족을 만나서 행복했지? 너희들은 수많은 형제자매들을 보았다. 다른 시대에 어느 누가 그런 거대한 가족을 가진 적이 있느냐? 이것은 단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그것이 가족 전체는 아니었다. 가족 전체가 다 모이게 하려면 텔리를 통째로 너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아부에서 다 함께 모으려면 저기 아부로드까지 공간 전체를 크게 차지해야 할 것이다. 모든 이가 자기의 건물들을 너희들에게 쓰라고 내놓을 그런 날도 역시 올 것이다. 그들은 캘커타의 빅토리아 운동장을 준비해서 너희에게 줄 것이다. 글들은 “오세요! 환영합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차츰 소리가 퍼질 것이다. 저 사람들이 이제는 너희가 덜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버지 브라마가 아비약트가 된 후에 그토록 거대한 집회가 모인 것을 보고 그들은 제 자신을 바쳤다. 다른 데서는 그들의 지도자가 떠난 뒤에 단체가 결렬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것이 더 늘어났고 사람들은 이것의 경이로움을 보았다. 너희들 모두 순수한 생각, 협조의 힘, 집회의 힘으로 봉사해왔다. 이제 너희는 모든 곳에 다 초대받을 것이다. 총독 관저가 너희의 집이 될 것이다.

2. 너희는 너희들 자신이 끊임없이 가슴의 옥좌에 앉아 있다고 여기느냐? 사이클 전체를 통틀어서 다른 어떤 시대에도 아니고 오직 합류시대에만 너희는 이 가슴의 옥좌를 얻을 수 있다. 누가 가슴의 옥좌에 앉을 수 있느냐? 변함없이 진심으로 마음의 위로자 바바와 함께하는 자들이다. 한결같이 한 아버지에게만 속할 뿐 다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장소가 곧 가슴의 옥좌다. 그러면 너희는 어디에 사느냐? 옥좌를 떠나면 너희는 단두대에서 끝난다. 너희는 여러 생에 걸쳐서 마야의 단두대에 사로잡히게 된다. 아버지의 가슴의 옥좌 아니면 마야의 단두대, 둘 중 하나다. 그러면 너희는 어디에 머물러느냐? 아버지 한 분 외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말고 심지어 너희 몸조차 기억하지 마라. 만일 너희 몸을 기억한다면 그것과 함께 너희는 육신의 친척, 소유물들, 온 세상 전체를 차례대로 모두 다 기억한다. 만일 너희의 생각에라도 미묘한 끈이 있으면 그것이 너희를 끌어당길 것이다. 이런 이유로 너희의 생각, 말, 행위에 비록 미묘한 방식으로 애착의 끈이 없게 해라. 변함없이 자유로이 지내라, 그러면 너희가 남들을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세상 전체가 마야의 덫에 갇혀 있기 때문에 고통으로 울부짖고 있다. 이 덫에서 모든 이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너희는 우선 먼저 너희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한다. 심지어 미묘한 방식으로 너희 생각에 아무런 굴레가 없어야 한다. 굴레에서 자유로운 정도만큼 너희는 그에 따라 고귀한 단계에 안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여전히 뭔가 굴레가 있다면 비록 너희가 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도 그것들이 너희를 아래로 끌어내릴 것이다.

3. 너희는 너희들 자신이 이 세상에서 특별히 뽑힌 고귀한 영혼이라고 여기느냐? 아버지가 친히 너희를 그에게 속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너희는 느끼느냐? 온 세계 전체의 모든 영혼들 가운데서 아버지는 손으로 뽑을 소수의 영혼들만 택했고, 그들 중에서도 너희는 극소수의 고귀한 영혼들이다. 이 생각을 하자마자 너희는 무엇을 느껴야 할당하겠느냐? 너희는 초감각적인 기쁨을 경험할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경험하느냐? 너희는 초감각적인 기쁨을 경험하느냐, 아니면 그에 관한 얘기를 그저 들었을 뿐이냐? 너희는 이것을 실질적인 형태로 경험해보았느냐, 아니면 그저 그것에 대해 알 따름이냐? 지식이란 이해를 의미한다! 이해는 그것을 경험한다는 뜻이다. 듣고 들려주는 것은 경험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 고귀한 지식은 경험을 쌓기 위한 것이다. 너희들은 동시대 이후로 온갖 다양한 유형의 지식을 들어왔고 들려져왔다. 반 사이클 동안 해온 일을 지금 또 한다면 대수로울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새로운 세계를 위한 새로운 생,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지식이니, 너희가 이것을 실제로 경험해야만 새로울 수 있다. “영혼” “지고의 영혼” “사이클” 등 지식의 모든 말을 각각 다 경험해봐라. 영혼임을 깨닫고 경험해라. 지고의 영혼을 경험해라. 이를 새로움이라고 한다. 너희는 이것이 새로운 날, 새로운 밤, 새로운 가족이며 모든 것이 다 새롭다는 것을 경험하느냐? 지금 너희는 신봉의 결실로 지식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이 지식에서 경험을 쌓아라! 이것을 실천으로 옮겨라!

4. 너희들 모두 승리하는 보석들 아니냐? 승리의 깃발은 강하지 않느냐? 승리는 너희가 타고난 권리다. 이것은 단지 입으로 읊조릴 구호가 아니라 너희들의 실생활을 위한 구호다. 너희들은 이번 한 사이클만이 아니라, 매 사이클마다 승리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이미 무수히 여러 번 승리해왔다. 그렇게

승리하는 보석들은 끊임없이 명량한 상태를 지속한다. 패배 당하는 자들은 슬픔의 파도를 경험한다. 한결같이 승리하는 자들은 변함없이 행복할 것이다. 너희들에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슬픔의 파도가 있을 수 없다. 너희는 슬픔의 세상에서 벗어나 있다. 밤이 끝났고 이제 너희는 새벽 안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므로 슬픔의 파도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승리의 깃발이 끊임없이 높이 휘날리게 하고, 그것이 내려오지 않게 해라.

#### 작별의 때에, 다디들에게.

밥다다도 역시 사랑에 묶여 있다. 설령 원했더라도 그는 이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신봉의 길에서 굴레의 그림이 그려져 왔다. 실제로도 역시 비록 바바가 아비약트가 되긴 했지만 그는 사랑의 굴레에 묶여 있다. 그는 그 육신의 형태에서 해방되었지만 이 굴레에서는 헤어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너희들은 사랑에 묶여 있고 아버지도 역시 묶여 있다. (외국인들에게 신호하시며) 그들도 역시 모두 타파샤를 하고 있다. 지금이 낮이냐, 밤이냐? 이런 이유로 그들이 마법에 걸렸다고 일컬어지는 것이다.

**축 복:** 너희의 모든 생각과 행위 하나하나를 고귀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지각 있는 지식의 화신이 되어라.

지각 있고, 지식의 화신인 상태에서 모든 생각과 행위 하나하나를 창조해내는 자들은 성공의 화신이 된다. 이것의 기념물로 신봉의 길에서 그들은 어떤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스와스티카를 그리거나 가네쉬에게 머리 숙여 절한다. 스와스티카는 너희들 본래의 단계에 안정해 있다는 상징이고, 가네쉬는 지식으로 충만한 단계의 상징이다. 너희 자녀들이 지식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모든 생각과 행위 하나하나를 창조해낼 때 너희는 쉽게 성공을 경험한다.

**슬로건:** 브라민 삶의 특별함은 행복이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행복을 기부해라.

\*\*\* 음 산티 O M S H A N T I \*\*\*